

## 〈설저전〉의 서사적 특성과 창작의식

김 대 곤\*

### 차 례

- |                   |                  |
|-------------------|------------------|
| I. 서론             | 3. 여성에 의한 삼강의 실현 |
| II. 〈설저전〉의 서사적 특성 | III. 〈설저전〉의 창작의식 |
| 1. 파괴된 질서와 여성의 수난 | IV. 결론           |
| 2.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 |                  |

### 국문초록

이 글은 지금까지 〈설저전〉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외부적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문제로 삼고, 작품 자체가 내재하고 있는 서사적 특성에 집중하여 창작의식을 들여다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설저전〉은 세 가지 서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독특한 서사세계를 창출해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파괴된 질서와 여성의 수난’을 통해 남성에 의해 파괴된 질서 속에서 당대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겁탈과 늑혼을 주요하게 다루었으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극단적으로 대비시켜 가정과 국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그려냈다. 그리고 ‘여성에 의

\* 동의대학교 박사수료

한 삼강의 실현'을 통해 여성들이 유교질서의 기본 강령을 시현함으로써 남성에게 의해 파괴된 사회질서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담아냈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설저전>이 당대 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주고자 한 작품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실상 <설저전>은 전후 강상이 무너져 가던 17세기 조선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작품 속에서 초지일관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남성은 전란 때 목격되었던 사대부 남성의 실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한 사대부 남성의 욕망과 무능으로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가는 모습은 전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형클어져만 가는 17세기 조선의 현실과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 <설저전>이 전란의 상처로 인해 강상이 급속도로 무너져 갔던 17세기 후반에 창작되었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은 17세기 전후 강상이 무너진 조선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이 <설저전>에서 권신의 횡포로 인해 수난을 겪는 여성의 모습으로 구현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는 곧, <설저전>이 전후 강상이 무너져 가는 세대에 대한 여성의 걱정과 불안을 형상화했음을 의미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설저전>이 전후 강상이 무너진 세상에서 여성들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성의 삶을 억압하는 가족질서나 사회질서에서 찾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전후 사회의 문제를 가족질서나 사회질서 속에서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남성의 행태에서 찾고 있다. 실상 작품 속에서 남성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가족질서·사회질서의 파탄을 초래하고,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유교적 기본 강령을 충실히 시현함으로써 파탄된 가족질서·사회질서를 재건한다. 이는 <설저전>이 입으로 유교윤리의 강화를 통해 전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면서도 실제로 폭력만 일삼고 무능한 모습만을 보여준 당대 사대부 남성에게 대한 불신을 담아내고 '군위신장'·'부위자강'·'부위부강' 등의 유교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강상이

무너진 전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결국 <설저전>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후 사회의 위기를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설저전, 여성소설, 영웅소설, 여성영웅소설, 재자가인소설, 전후 소설, 임병양란, 17세기, 여성의식

## I. 서론

<설저전>은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가 시작될 무렵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근래에 작품의 형성시기가 밝혀지고 최초의 여성영웅소설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옥소 권섭(1671-1759)의 『옥소고』에 <설저전>의 한역본인 ‘번설경전’이 수록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설저전>이 17세기 후반 무렵에 형성된 뒤 1724년에 한문으로 번역된 정황을 밝혀냈다.<sup>1)</sup> 또한 <설저전>은 남성영웅소설의 장르관습에 견인된 여타의 여성영웅소설보다 이른 시기에 형성됨으로써 당대 여성에 대한 진지한 의식을 담아낼 수 있었으며<sup>2)</sup>,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인 ‘입신양명 구조’의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영웅소설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고 논의되었다.<sup>3)</sup> 이러한 일련의 논의들은 자칫 고전소설사에서 문힐 뻔한 <설저전>의 가치를 새롭게 밝혀내고, 여성영웅소설의 형성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1)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33쪽. 최호석, 『설계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83-287쪽.

2)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8-9쪽.

3)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화회, 2010, 36-36쪽.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화회, 2012, 98-100쪽.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설저전>을 중심으로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모습을 확인하는 작업은 최근 이루어진 여성영웅소설 연구 가운데 단연 손꼽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성영웅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설저전>의 중요도만큼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 이유는 <설저전>에 대한 연구 대부분이 향유계층이나 독서환경 등 작품 외부의 환경을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주제의식을 파악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성영웅소설사의 흐름을 확인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설저전>에 대한 연구가 작품의 내부적 특성보다 작품의 외부적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작품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 작품을 통해 여성영웅소설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집중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설저전>의 내부적 특성은 의도치 않게 연구자들에게 외면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작품에 마련된 서사적 특성이나 그 속에 함의된 사유는 여전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글은 <설저전>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보다 작품 자체가 지니고 있는 내부적 특성을 선명하게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래서 <설저전>의 내용을 충실히 살펴봄으로써 작품의 서사적 특성을 밝혀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작품에 투영된 창작의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설저전>이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당대 여성의 반감을 보여줬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존의 주장과 달리, 17세기 조선 현실을 경험한 작가의 사유가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었는가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sup>4)</sup>

4) <설저전>은 '설계전'·'설비효령록'·'의닐비통효록'·'의렬왕비충효록' 등의 제명으로 현재 11종의 이본이 남아있다. 선행연구에서 <설저전>의 이본을 수렴·분류하여 계열 간의 특징을 살펴봤지만(최호석, 『<설저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13집, 우리문화회, 2000.), <설저전>의 이본은 인명·지명·표현방식·세부장면 등에서 차이가 확인될 뿐 계열을 구별할 정도로 큰 차이를 발견할 수

## II. <설저전>의 서사적 특성

### 1. 파괴된 질서와 여성의 수난

고전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이 파괴된 질서로 인해 발생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는데, 고난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어떻게 극복되는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예컨대 연적·가권·전쟁·운명 등에 의한 혼사장애를 남녀주인공이 애정과 신의로서 극복해나간다면 애정소설로 볼 수 있고, 인성적 결함을 지닌 개인이나 사회적·구조적 병폐로 인해 흔들린 가정질서를 주인공 또는 조력자가 바로잡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가정소설로 볼 수 있으며, 간신의 횡포나 외세의 침입 등으로 무너진 국가질서를 주인공이 지략과 무예를 통해 수호한다면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전소설은 고난의 발생요인과 극복과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고전소설에서 주인공이 겪는 고난이 작품의 서사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설저전>도 파괴된 질서로 인해 발생한 고난을 주인공이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권신에 의해 파괴된 질서가 여성의 수난으로 직결되는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설저전>에서 권신으로 등장하는 최훈은 황제를 속이고 사직을 어지럽혀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작품 속에서 최훈은 “심정이 부정하고 우인이 스스꺼여 첨양디신하고 추복황총하고 안하무인하되”<sup>5)</sup>라고 묘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최훈의 실체를 알아보지 못한 황제는 최훈을 나라의 주추로 여기고 중용하게 된다. 이렇게 최훈은 황제의 신임을 얻어 권력을 잡게 되자 충신을 견제하며 황제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간신과 협력하

---

없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설저전>의 이본 가운데 문맥이 가장 자연스럽게 서사적 흐름이 매끄러운 ‘한중연 36장본 <의닐비통효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5) 한중연 36장본 <의닐비통효록>, 5쪽.

여 조정을 장악한 뒤 주색에 빠져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황제의 신임을 얻은 최훈의 횡포로 인해 안온하던 사회질서는 점차 파괴되어 가고, 그러한 사회질서의 파괴는 이내 여성의 수난을 동반하게 된다.

최훈은 조정을 장악한 이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하루는 최훈이 퇴조하는 길에 사대부 부녀자인 정씨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품게 되는데, 정씨의 가문이 한미한 것을 안 최훈은 거리낌 없이 타문의 규방에 들어가 정씨를 겁탈하려고 한다. 이때 정씨는 침선을 하다가 무단히 들어오는 최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부녀자로서 당대 최고의 세도가인 최훈의 위협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결국, 정씨는 최훈의 겁탈 위협에서 아무런 탈출구도 찾지 못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설저전>은 작품의 초입에 ‘부녀자 겁탈사건’을 마련하여 권신 최훈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씨를 죽음으로 몰고 간 상황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부녀자 겁탈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주목할 때 사건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해자인 최훈은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사대부로서 누구보다 유교이념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황제를 도와 천하를 진무해야 할 인물이며, 피해자인 정씨는 비록 한미한 가문이지만 사대부 부녀자로서 정절을 지키고 남편을 도와 가정을 경영해야 하는 인물이다. 그렇다면 ‘부녀자 겁탈사건’은 유교이념을 수호해야 할 사대부 남성이 정절의식이 투철한 사대부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라 할 수 있다. 결국, <설저전>의 초입에 마련된 ‘부녀자 겁탈사건’은 최훈의 농간으로 인해 질서가 파괴되자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작동되지 않았던 구조적 병폐, 유교이념을 수호해야 할 사대부 남성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정절의식이 투철한 사대부 여성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패륜적 행위를 형상화하는 데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훈의 악행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데 그치지 않고, 아들의 혼사를 위해 타문의 여성을 납치하려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작품 속에서 최훈은 설소저를 머느리로 들이기 위해 설중에게 혼담을 꺼냈다가 거절당했는데, 설중이 북방으로 유배되자 최훈은 다시 매파를 보내어 자신의 아들과 설소저의 혼례를 성사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설소저는 최훈이 보낸 매파를 돌려보내며 혼담을 단번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설소저의 입장에서 최훈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부녀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탈자이자, 결백한 부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유배를 보냄으로써 가문을 몰락하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소저가 최훈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훈은 조금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훈은 독단적으로 혼례일을 잡고 아들을 초행에 나서게 함으로써 강압적으로 혼사를 진행시킨다.

이때 설소저의 가문에서는 권신 최훈의 늑혼을 막을 여력이 없었다. 설소저의 모친은 기세한지 이미 오래되었고 설소저의 부친마저 원찬되면서 가문의 권세가 서서히 기울어져 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소저는 권신의 늑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훈의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린 뒤 도망의 길을 택한다. 설소저는 혼례일이 되어 최훈의 아들이 초행을 나서자 시비 미량과 의복을 바꾸어 입고 도망함으로써 최훈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로 인해 미량은 설소저 대신 최훈의 아들과 혼례를 올려 최훈의 가문에서 생활하게 되고, 집을 나온 설소저는 남복을 입고 거리에서 유리표박하며 고난을 겪게 된다. 이처럼 최훈이 권세를 믿고 추진한 ‘세도가 늑혼사건’은 세도가의 횡포에 의해 한 가문과 한 여성이 몰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상으로 <설저전>에서 권신에 의해 파괴된 질서가 여성의 수난으로 직결되는 모습을 살펴봤다. 작품 속에서 최훈이 황제의 신임을 얻은 뒤에 충신을 배척하고 간신과 협력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점차 파괴해 나갔

고, 그렇게 파괴된 질서 속에서 최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로 인해 정씨는 권신의 겁탈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결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설소저는 세도가의 늑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남복을 입고 거리에서 유리표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저전>은 파괴된 질서 속에서 권세 있는 남성이 나약한 여성에게 가한 폭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여성의 처지를 형상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 권신에 의해 파괴된 질서가 여성의 수난으로 직결되는 현상이 작품 전반에 걸쳐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설저전>은 서사구조 상 대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부녀자 겁탈사건’으로 인해 최훈과 설중이 대립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중반부는 최훈의 늑흔으로 인해 설소저가 남장·가출하는 ‘세도가 늑흔사건’을 다루었으며, 후반부는 설소저가 과거에 급제한 뒤 최훈을 징치하고 가문을 재건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설저전>은 사회질서의 동요를 틈타 악행을 일삼는 최훈에 의해 고통을 받는 여성들의 모습을 다룬 뒤, 설소저가 최훈의 악행을 황제에게 알림으로써 원흉을 제거하는 과정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설저전>은 최훈, 정씨, 설소저를 통해 당대 여성들이 겪었을 법한 고통과 불안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였다. 사실 세 인물을 통해 다루어진 겁탈과 늑흔은 권세 있는 남성이 나약한 여성에게 가한 폭력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작품 속에서 겁탈과 늑흔은 늦은 밤 길거리나 산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낮에 여성이 거처하는 규방에서 일어났다. 또한 유교적 이념을 수호해야 할 사대부 남성이 정절의식이 투철한 사대부 여성을 대상으로 벌인 패륜적 사건이기도 하다. 이는 곧 여성이 거처하는 규방도 더 이상 여성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없다는, 남편이 있는 사대부 부녀자도 외부로부터의 성적 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회적 불안감이 작품 속에 투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설저전>은 질서의 파괴로 인해 강상이 무너진 사회를 배경으로 삼고, 그러한 사회질서 속에서 나타난 여성의 고통과 불안을 고스란히 담아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 2.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

앞에서 권신 최훈에 의해 질서가 파괴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들이 수난을 겪게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설저전>에서 사회질서가 파괴되어 여성들이 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작품에 비교적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황제는 최훈이 간신임을 알아보지 못하고 중용하였다가 국가를 위태롭게 했고, 설중과 이생은 최훈의 횡포로부터 가족과 조정을 지켜내지 못했다. 즉, <설저전>에서 여성들이 수난을 겪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남성들이 무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유사한 상황에서 남녀의 상반된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준 점이다. 그 모습은 ‘이생·정씨 부부’와 ‘설중·설소저 부녀’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남녀에게 주어진 상황과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자.

먼저, 이생·정씨 부부에게 주어진 상황과 두 인물의 대응방식을 살펴 보자. 이생과 정씨에게 던져진 문제 상황은 권신의 겁탈 시도이다. 이미 앞에서 정씨는 최훈의 겁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결을 택했음을 살펴보았다. 가난하고 힘없는 부녀자로서 권세 있는 최훈의 횡포로부터 정절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정씨는 나약한 여성임에도 자신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끊은 강인한 정신을 소유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에 비해 이생은 아내가 자결한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시종일관 왜소하고 나약한 모습만을 보여준다.

상의 흐 직상이 안갯고 처난 목의 단기를 쏘고 성혈이 넘의 고였고

명니 곳쳐난지라 싱이 붓들고 오겨 통곡호이 훈이 덕로호여 싱을 죽기  
고자 호거날 싱이 저의 성명을 아난지라 혈서를 가지고 전도이 담을 너  
머 다라나거날 훈이 쏘호 급히 다라난지라 싱이 두로 방황호여 통곡호  
이 설시량이 맞춤 지나다니싱을 만나 울고 서상함을 보고 연고을 무  
라이 정씨 괴절함을 보고 훈이 겁박함으로 그 처 횡스호을 고토호어<sup>6)</sup>

위 인용문은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한 정씨의 모습을 본 이생의 태도를 서술한 부분이다. 이 장면에서 이생은 아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최훈과 마주하고도 아내를 위하여 항거하거나 원수를 갚으려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최훈이 이생을 보고 화를 내며 죽이려고 하자 이생은 부인이 쓴 혈서만을 가지고 담을 넘어 사건현장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이생은 최훈으로부터 도망한 뒤 복수에 대한 의지를 다지기보다는 정처 없이 방황하며 눈물만 흘리는 것으로 묘사된다. 결국, 권신의 겁탈 시도라는 문제 상황에서 정씨는 자신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항거하며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 비해, 이생은 자신의 아내가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비겁하고 나약한 태도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생과 정씨의 상반된 대응방식은 당시 가족질서 속에서 의무를 저버린 가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라고 생각한다. 당시 가족질서는 가장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배권’·‘가산에 대한 독점권’·‘가계 계승에 대한 결정권’ 등 가문내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하는 체제였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형태에서 가장은 누릴 수 있는 권력만큼 무거운 의무도 짊어져야 했다. 가장은 외부적인 위협과 폭력으로부터 가문을 보호하고 가문이 번창할 수 있는 원동력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생은 가장으로서 아무런 의무도 완수하지 못했다. 이생은 벼슬길에 진출하지 못함으로써 가문을 점점 쇠락의 길로 빠져들게 했으며, 최훈의 횡포로 죽음에 이

6) 위의 작품, 9-10쪽.

른 부인을 두고 도망하는 과립치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게 <설저전>은 정절을 지키려는 정씨와 가장의 의무를 저버린 이생을 통해 당시 나약하고 무능한 가장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으로 설중·설소저 부녀에게 주어진 상황과 두 인물의 대응방식을 살펴보자. 설중·설소저 부녀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은 세도가의 횡포에 의한 가문몰락이다. 작품 속에서 설중이 최훈의 혼담을 거절하면서 설부와 최부의 대립이 촉발되는데, ‘부녀자 겁탈사건’을 둘러싸고 설중과 최훈이 갈등을 빚으면서 두 가문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다. 설중은 부녀자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 최훈의 악행을 황제에게 알리기 위해 상소문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최훈은 자신의 죄를 설중에게 뒤집어 씌워 정적을 제거하고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 결과 상소문을 소홀히 관리한 설중은 최훈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북방으로 유배되고, 이후 권세가 기울어진 설부에서 지내던 설소저는 최훈의 늑흔을 피해 집을 나와 거리를 떠돌게 된다. 이처럼 설중·설소저 부녀에게 주어진 문제 상황은 세도가의 횡포에 의한 가문몰락인데, 두 인물이 가문몰락에 대응하는 방식은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려진다.

설중은 최훈과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북방으로 유배된 이후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설중은 한동안 작품의 이면으로 밀려났다가 작품 말미에 유배지에서의 모습이 잠시 서술된다. 그 내용 가운데 “장부의 간중이 늑약호물 면치 못 흘지르 질병이 침면호여 상석의 이지 못호늑 의약을 구완호리 업고”<sup>7)</sup>라는 부분에서는 질병에 시달리며 근근이 목숨을 연명해가는 설중의 참혹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슈월의 음풍이 년월호야 고국을 향망호미 스군호난 눈물이 옷 압홀 적시고 버거 여으의 고헤호말 싱각호미 신기 손상호고 경흔이 모손호야”<sup>8)</sup>라는 부분에서는 고국을 향해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설중의 내면이 묘

7) 위의 작품, 43쪽.

8) 위의 작품, 같은 쪽.

사되고 있다. 최훈과의 대결에서 예견되었듯이 설중은 초지일관 치밀하지 못하고 나약한 심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다가 작품 말미에 설소저에게 구출되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무능하고 나약한 설중과 달리 설소저는 눈앞에 닥친 고난을 적극적으로 헤쳐 나간다. 설소저는 최훈의 늑혼에서 벗어나기 위해 남장을 하고 가출을 시도하였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해 청암사에 의탁한 뒤 문장을 충실히 익히기도 하였다. 또한 설소저는 최훈의 죄상을 알리고 부친의 신원을 위해 과거시험에 도전하였으며, 끝내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한 뒤 황제에게 지난 일을 알려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 결국 이러한 설소저의 행위는 억울하게 귀양을 갔던 설중을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하고, 가문의 원수이자 국가의 간신인 최훈의 악행을 황제에게 알려 원흉을 제거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설소저는 눈앞에 닥친 화를 피하고 부친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며, 그 행위를 통해 개인적 지향가치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저전>은 설중과 설소저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설중은 신하로서 가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신하는 황제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을 때 직언으로 잘못을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설중은 최훈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국가의 질서가 흔들리는 사실을 황제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훗날 최훈의 악행을 알리는 상소문을 허술하게 관리했다가 가문의 몰락을 초래함으로써, 가문을 외부적인 폭력으로부터 지켜야 할 가장의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중의 무능함으로 발생한 가문의 몰락과 질서의 파괴는 설소저에 의해 극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과거급제를 통해 황제에게 최훈의 악행을 알림으로써 부친을 신원하여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고 간신을 처단하여 국가질서를 바로잡은 것이다. 이처럼 설중과 설소저를

통해 국가의 신하로서 가문의 가장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남성, 남성을 대신해 신하와 가장의 의무를 수행하는 여성의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난다.

이상으로 <설저전>이 이생·정씨 부부와 설중·설소저 부녀를 통해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형상화하였음을 살펴봤다. 그 과정에서 남성들은 가정과 국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능한 모습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었다. 이생은 가장으로서 가문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고 최훈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하였으며, 설중은 최훈과의 대결에서 패배함으로써 가장과 신하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무능한 남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최훈은 거리낌 없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고, 파괴된 질서 속에서 여성인 정씨와 설소저가 희생과 투쟁을 통해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수호하려고 했다. 이는 곧 <설저전>이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가문과 국가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던 당대 남성에 대한 불만을 담아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 3. 여성에 의한 삼강의 실현

앞에서 무능한 남성과 패륜적 남성으로 인해 사회질서가 점차 파괴되어 갔고, 그렇게 파괴된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수난을 당하는 모습을 살펴봤다. 그리고 남성들에 의해 발생한 질서의 파괴와 여성의 수난이 강인한 여성들에 의해 극복되는 양상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강인한 모습을 보이는 여성들의 행위가 모두 유교이념을 수호하는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미랑, 설소저, 정씨는 공교롭게도 유교의 세 가지 기본 강령인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부강’을 수호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여기서 <설저전>에서 세 여성에 의해 삼강이 실현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고, 그러한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삼강 가운데 ‘군위신강’을 시현한 인물은 미랑이다. 작품 속에서 미랑은 설소저의 시비로 잠시 등장하는 인물인데, 설소저를 최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훈은 자신의 권세를 믿고 설소저에게 혼인을 강요하다가 기어코 독단적으로 혼례일을 결정하고 아들에게 초행을 나서게 했다. 이에 설소저는 시비들과 함께 최훈의 늑혼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고민 끝에 시비 미랑이 설소저를 대신하여 혼례복을 입고 최부에 시집가도록 일을 꾸민다. 그에 따라 시비 미랑은 혼례일에 신부의 모습으로 꾸며 최부로 시집간 뒤 설소저의 행세를 하며 최훈의 이목을 끌고, 그 사이에 설소저는 다른 시비들과 남장·가출하여 최훈의 늑혼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처럼 시비 미랑이 자기 몸을 희생하여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출하는 행위는 삼강 가운데 ‘군위신강’을 시현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설소저는 최훈의 악행을 드러내어 간신을 징치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군위신강’을 시현한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작품에서 설소저는 ‘군위신강’을 수호한 행위보다 ‘부위자강’을 시현한 인물로 거듭 묘사되는 특징을 보인다. “쇼제 부친을 피셔 일시도 슬하을 췌나지 안이흐며 빈각이 이란즉 협실노 드러가 훗터진 후 나와 피셔 효즈의 도을 극진이 드흐니 가히 범년흐 부녀즈의 비기지 못홀지르”<sup>9)</sup>라거나 “쇼제 시년 이십일 세 되니 제사 밧들며 야야를 효봉흐고 가너을 정치흐야 위덕이 병헿흐이 녀도의 미흡흐 비 읍느지르”<sup>10)</sup>라며 서술자는 설소저의 효행을 드러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여기서 설소저가 수행한 행위의 동기에 주목한다면 설소저는 ‘부위자강’을 시현하기 위해 안배된 인물임이 알 수 있다.

9) 위의 작품, 3쪽.

10) 위의 작품, 4쪽.

너 이제 번복하야 동셔를 정흐른 다르미 안이라 일은 욱을 먼츠흐미  
요 이는 부친을 위흐미러이 일시 천여 삼지에 니르디 야야의 존문얼 듯  
지 못하야 쇼여의 비회 간절흐지르 내 구구흐 정세 양난흐딜 도라 보지  
안여 이에 과거의 춤예흐 후 요힝 득지흐 즉 춘열원억흐 사정을 천즈씨  
고하야 야야를 신빅흐고 일이 쫓과 갖지 못흐면 십싱구사하여 야야를  
츠즈가련이와 만일 불힝흐면 혼빅이 야야을 짜로리라 주의을 정흐고 이  
후난 폐문불출흐고 셔칙의 줌심흐미<sup>11)</sup>

위 인용문은 설소저가 청암사에 찾아온 유생들에게 과거소식을 들은 이후 설소저의 내면을 서술한 부분인데, 설소저가 스스로 남장·가출한 이유와 과거시험을 치려는 이유를 고백하고 있다. 설소저는 “너 이제 번복하야 동셔를 정흐른 다르미 안이라 일은 욱을 먼츠흐미요 이는 부친을 위흐미”라며 눈앞에 닥친 화를 피하고 부친을 만나기 위해서 남장·가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과거의 춤예흐 후 요힝 득지흐 즉 춘열원억흐 사정을 천즈씨 고하야 야야를 신빅흐고 일이 쫓과 갖지 못흐면 십싱구사하여 야야를 츠즈가련이와 만일 불힝흐면 혼빅이 야야을 짜로리라”라는 부분에서 설소저가 부친의 원역한 사정을 황제에게 알리기 위해 과거시험에 도전함을 밝혀놓았다. 따라서 <설저전>에서 설소저가 과거급제를 통해 최훈을 징치하고 부친을 신원하는 행위는 삼강 가운데 ‘부위자강’을 시현하기 위한 것이라 봐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씨는 삼강 가운데 ‘부위부강’을 시현한 인물로 그려진다. 이생의 아내로 등장한 정씨는 작품 속에서 인물의 모습조차 뚜렷하게 묘사되지 않을 정도로 비중이 낮게 서술되지만, 그녀가 최훈에 맞서서 보여준 행위는 비중을 떠나 향유자들에게 적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한다. 작품 속에서 정씨는 최훈이 겁탈하려고 하자 정절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 이 장면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身’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命’을 끊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정씨가

---

11) 위의 작품, 28-30쪽.

‘身’을 지키기 위해 ‘命’을 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마땅히 정씨가 남편 이생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일 것이다. 따라서 정씨가 최훈의 겁탈에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삼강 가운데 ‘부위 부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저전>에서 여성인물인 미랑, 설소저, 정씨에 의해 삼강이 실현되고 있음을 살펴봤다. 시비인 미랑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위기에 처한 주인을 구출하여 ‘군위신강’을, 설소저는 과거급제한 뒤 억울하게 유배된 부친의 원익한 사정을 밝혀 ‘부위자강’을, 정씨는 겁탈 위기에 빠지자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부위 부강’을 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삼강을 수호한 여성들은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미랑은 설부로 돌아온 뒤 초당과 차환을 받고 비단과 금을 얻게 되며, 설소저는 부친의 원익한 사정을 밝히고 원수를 갚은 뒤 태자와 결혼하여 위국부인이 되고, 이미 죽은 정씨는 현실적 보상 대신에 부인의 절행을 기리기 위해 열녀비가 세워진다. 이처럼 <설저전>은 여성 인물을 통해 삼강을 수호하는 모습을 보여준 뒤, 삼강을 시현한 여성에 대한 현실적·이념적 보상을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이유는 여성들이 삼강을 수호함으로써 파괴된 질서를 안정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기 때문이다. 작품 속에서 삼강을 시현한 세 여성은 최훈에 의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는 데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랑은 설소저를 늑혼위기에서 구출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고, 정씨는 최훈의 겁탈 사실을 알리는 혈서를 써서 범죄행위를 증명할 단서를 남겼다. 그리고 설소저는 미랑의 도움을 받아 몸을 잠시 숨겼다가 과거급제 이후 상소문과 함께 정씨의 혈서를 황제에게 제출함으로써 사회질서의 동요를 일으킨 원흉을 제거했다. 세 여성의 행동은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악행의 중심에 서있는 최훈을 징치하여 무너진 사회질서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저전>은 미랑, 정

씨, 설소저가 삼강을 수호함으로써 탐욕스럽고 무능한 남성들로 인해 붕괴된 사회질서를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Ⅲ. <설저전>의 창작의식

<설저전>은 여주인공이 과거급제를 통해 현실적 고난을 타개하고 몰락한 가문을 재건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인데, 지금까지 남성중심 사회질서를 비판하거나 남성중심 사회의 한계를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되어 왔다. 그 이유는 <설저전>이 조선후기 팽배했던 남존여비 사상에 의해 유린된 여성들의 인권을 겁탈사건과 늑혼사건으로 드러내었고, 남성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sup>12)</sup> 또한 이 작품은 참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여성의 모습을 제법 현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군담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성영웅소설의 통속적 구성에서 벗어나 있기도 하다.<sup>13)</sup> 이렇게 선행연구 성과를 고려하면 <설저전>은 당대 남성중심 사회질서에 대한 나름의 비판의식이 투영된 작품으로 볼 근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현재 <설저전>의 창작의식이 온전히 드러났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남성중심 사회질서의 한계’가 <설저전>이 형성된 17세기 사회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조선후기에 팽배했던 남존여비 사상을 ‘남성중심 사회질서의 한계’로 파악하고 있는데,<sup>14)</sup> <설저전>의 창작의식을 당대 만연했던 의식으로 설명한다면 작품의 실상에 다가

12) 최호석, 『설저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294-299쪽.

13) 류준경, 앞의 논문, 8-9쪽.

14) 최호석, 앞의 논문, 294-295쪽.

설 수 없다. 선행연구 성과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각도로 많은 차이를 보이는 <설저전>과 <이현경전>·<홍계월전>·<정수정전> 사이의 변별적 지점을 찾기가 어려워질 뿐더러, ‘남성중심 사회질서의 한계’와 ‘여성에 의한 사회질서의 회복’을 다룬 작품이 하필 17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는지도 설명하기 힘들어진다. 그래서 <설저전>에서 문제로 삼고 있는 ‘남성중심 사회질서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것이 17세기 사회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더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설저전>에 투영된 17세기 사회의 모습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17세기 조선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17세기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얻은 상처가 고스란히 전해지던 시대이자, 그 상처가 미처 아물기도 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삶의 터전이 급격하게 붕괴되던 시대이다. 그러한 국제정세와 함께 광해군 대부터 숙종 대까지 왕권과 봉당을 둘러싸고 정치세력의 대립은 날로 심화되었으며, 북벌을 위해 군비를 무리하게 증강하면서 국가재정과 민중생활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내우외환에 시달리던 17세기 조선의 참상은 경상감사 민시중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전해진다. 민시중은 경상도 지역에 기아가 발생하여 부모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자식을 버리고, 남편이 죽었음에도 아내는 손에 쥔 죽을 놓지 못 하였다고 당시의 모습을 토로하고 있다.<sup>15)</sup> 이처럼 17세기 조선에는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간 전쟁의 상처만이 남아 있었고, 그로 인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강상이 급속도로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아, 풍속이 퇴폐해져 윤리가 무너지고 기강이 해이해져 법령이 행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는 자도 있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는 자도 있으며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는 자도 있는가 하

15) 『현종실록』, 12년(1671) 4월 6일 1번째 기사.

면 원한이 조금만 있어도 대낮 도회지 가운데서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법을 시행하여 단속하고 나면 내일 또다시 그렇습니다. 이로써 보면 무지개가 태양을 꿰뚫고 별이 낮에 나타나며 지진이 일어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얼어붙고 양기가 강성하여 가무는 것은 다만 그 그림자일 뿐으로, 이것은 업적을 교화보다 앞세우고 형벌을 덕정보다 앞세운 데서 말미암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sup>16)</sup>

위 인용문은 1657년 5월 14일 대사헌 김좌명이 당시 조선에 일어난 폐단을 지적한 내용인데, 강상이 무너지고 있는 당대 현실에 대한 걱정과 대안을 토로하고 있다. 김좌명의 말에 따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노비가 주인을 죽이며,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세상이 조선임을 알 수 있다. 즉, 조선은 작은 원한만 있어도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서로 죽일 수 있는 무법천지의 세상이며, 강상이 무너져 유교의 기본 강령조차 지켜지지 않는 윤리부재의 세상이다. 여기서 대사헌 직책에 있던 김좌명에 의해 강상이 무너져 가는 조선의 현실이 포착되고 있는 점은 자못 중요하다. 대사헌은 사헌부의 장관으로 현실정무를 논평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 잡는 일들을 총괄한다. 그렇다면 김좌명은 대사헌의 직책에서 풍속이 퇴폐하고 강상이 무너져 가는 조선의 현실을 직접 목도하고, 그러한 세태를 바로 잡기 위해 교화와 덕정을 앞세운 정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대사헌 김좌명의 이야기에서 강상이 무너져 가는 조선의 현실, 강상이 무너져 가는 17세기 조선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불안과 염려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전란 이후 황폐화된 삶의 터전으로 인해 강상이 무너져 가는 17세기 조선의 현실은 <설저전>에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작품 속에서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황제와 횡포를 일삼는 세도가에 의해 삶의 터전은 점차 황폐화되어 가고, 사대부 남성들은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강상이 무너져가는 세태를 지켜보기만 한다. 그로 인해 세도가는 때

16) 『효종실록』, 8년(1657) 5월 14일 2번째 기사.

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일삼을 수 있었으며, 여성들은 세도가의 횡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문에서 떨어져나가 길거리를 헤매게 되었다. 이렇게 <설저전>은 일그러진 남성 사회질서로 인해 강상이 무너진 현실을 배경으로 삼고, 그러한 세태 속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처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은 아마도 전후 삶의 터전과 강상이 무너지가는 현실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걱정이 작품 속에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설저전>에는 전란이 작품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 시종일관 나약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이는 설중과 이생은 전란 때 목격되었던 사대부 남성의 실체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대부 남성의 욕망과 무능으로 국가질서가 흔들리고 가족질서가 파괴되는 모습은 전후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고 형클어져만 가는 17세기 조선의 현실과 너무도 닮아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설저전>은 전란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던, 그래서 강상이 급속도로 무너져 가던 17세기 후반에 형성된 사실도 중요하다. 17세기 강상이 무너진 조선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들이 작품 속에서 권신의 횡포로 인해 수난을 겪는 여성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듯하다. <설저전>에서 전란이 작품의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작품이 다루는 문제가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후 사회질서가 무너진 조선의 현실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과 사실들은 <설저전>이 전후 강상이 무너지가는 세대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과 고민을 형상화하였음을 추정케 한다.

그리고 <설저전>은 강상이 무너진 사회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성에 의한 삼강의 실현을 제시하였다. 작품 속에서 설소저는 '부위자강'을 실현했고, 정씨는 '부위부강'을 수호했고, 미랑은 '군위신강'을 시현했다. 그리고 세 여성이 삼강을 실현함으로써 남성들의 탐욕과 무능으로 무너져가던 사회질서는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여기서 <설

저전>의 향유층과 향유방식을 고려하면, 여성이 삼강을 수호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 작가의 메시지를 제법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설저전>은 주로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으며<sup>17)</sup>, ‘설저전’보다 ‘의열비충효록’이라는 제명으로 널리 유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8)</sup> 이는 곧, <설저전>이 당시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향유되면서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구현한 작품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설저전>은 전후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남성로 인해 강상이 무너진 세상을 배경으로 삼고,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여성에 의한 삼강의 실현을 제시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설저전>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후 사회의 혼란을 진단하고, 전후 사회의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찾고자 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에서 남성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모두 저버림으로써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붕괴시켜 나가고, 여성들은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유교사회의 기본 강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붕괴된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회복시켜 나간다. 이는 결국 <설저전>이 전후 강상이 무너진 이유를 유교질서 속에서 의무를 저버린 사대부 남성의 그릇된 행태에서 찾고 있으며, 전후 붕괴된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교질서의 기본 강령을 더욱 충실히 수호해야 한다는 사유를 담아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저전>은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억압하는 가족질서나 사회질서를 자각한 진보적 의식을 지닌 작가에 의해서 창작되었다거나, 조선후기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반감’이나 ‘남성 중심 사회질서의 한계’를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오히

17) 옥소 권섭은 한문 식자층을 위해 한글소설인 <설저전>을 한문으로 번역하였으며(권성민, 앞의 논문, 33쪽), <설저전>은 소설이 대중화되기 전에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유통되어 필사본의 형태로 향유되었다.

18) 최호석, 「<설저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13집, 우리문화회, 2000, 55-58쪽.

려 이 작품은 보수적 입장에서 있는 작가가 전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남성들로 인해 강상이 급속하게 무너져 가는 현실을 포착하게 되면서 형성될 수 있었으며, 유교사회의 구성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 기존 가족질서·사회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유를 담아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실제로 <설저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후 사회의 혼란과 동요를 날카로운 시선으로 포착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설저전>은 임병양란 이후 무너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유교윤리를 더욱 강화하던 17세기 후반에 형성되었다. 당시 사대부 남성은 주자가례의 보급과 확산으로 유교윤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며, 사대부 여성은 교육을 통해 남성에 의해 치밀하게 설계된 가정적·사회적 규율을 철저히 습득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대부 남성에 대한 불신은 견잡을 수 없이 커져나갈 수밖에 없었다. 전시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 앞에서 사대부 남성의 나약한 실체는 여과 없이 드러나게 되었고, 전후 왕권과 봉당을 둘러싸고 갈등만 일삼으며 파탄된 현실을 재건하지 못하는 사대부 남성의 무능한 모습도 이내 밝혀지게 되었다. 이렇게 입으로 유교윤리를 강화하여 전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파탄된 가족질서와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하던 사대부 남성의 이면적 모습이 <설저전>의 작가에게 포착된 듯하다. 그렇다면 <설저전>은 무능한 남성에 의해 파괴된 사회질서를 여성의 힘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전후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사대부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을 형상화하면서도, 유교윤리의 강화를 통해 전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함께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IV. 결론

지금까지 <설저전>의 서사적 특성과 창작의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저전>은 세 가지 서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창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은 ‘파괴된 질서와 여성의 수난’을 통해 당대 여성들이 직면할 수 있었던 겁탈과 늑혼의 문제들을 주요하게 다루었고, 그 문제를 ‘무능한 남성과 강인한 여성’의 구도로 풀어냄으로써 어떠한 역할에도 충실하지 못했던 남성의 형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여성에 의한 삼강의 실현’을 통해 여성들이 유교이념을 수호함으로써 파괴된 질서를 극복하는 모습을 그려냈다. 이러한 <설저전>의 서사적 특성은 전후 강상이 무너져 가는 17세기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 작품에는 전란에서 목격된 남성의 실체가 나약하고 무능한 남성의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었고, 전후의 혼란한 세태가 사대부 남성의 욕망과 무능으로 파괴되어 가는 모습으로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을 겪는 여성들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수렴하면 <설저전>은 전후 강상이 무너져 가는 세태 속에서 고통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설저전>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전후 사회의 혼란을 진단하고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작품은 전후 사회질서가 무너진 이유를 유교질서 속에서 의무를 저버린 사대부 남성의 행태에서 찾고, 강상이 무너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유교질서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의식을 보여줬다. 이러한 <설저전>의 문제의식과 해결방식은 당시 입으로는 유교윤리를 강화하여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면서도 폭력만 일삼고 무능한 모습만 보여준 사대부 남성의 이면적 모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된 듯하다. 즉, 전시 폭력 앞에서 확인되었던 나약한 남성의 실체, 전후 사회질서를 회복하기는커녕 왕권

과 봉당을 둘러싸고 갈등만 일삼는 무능력한 남성의 실체가 작품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삼강을 실현하여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는 당시 아무런 의무도 하지 못했던 사대부 남성에게 대한 끊임없는 불신을 상징한다. 따라서 <설저전>은 전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기만 하는 사대부 남성에게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도, 유교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으로 전후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식을 함께 담아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 <설저전>에 대한 연구가 작품 내부의 특성을 외면한 채, 작품 외부의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문제로 삼았다. 그래서 <설저전>과 관련된 문학 환경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작품 자체에 주목하여 서사적 특성과 창작의식을 밝혀내는 데 논의를 집중시켰다. 그 덕분에 <설저전>이라는 작품의 내부적 특성과 그 속에 함의된 사유를 비교적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접 시기·인접 작품과의 관계를 수렴하여 <설저전>의 소설사적 위치나 의의를 밝히는 데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실상 <설저전>은 17세기에 형성·향유된 재자가인소설이나 가문소설과 밀접한 관련 속에 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18세기에 이르러서 여성영웅소설이 형성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논의되었다. <설저전>의 소설사적 위치나 의의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글에서 살펴본 서사적 특성과 창작의식을 기반으로 <설저전>이 17·18세기 소설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후속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

## 참고문헌

- <의닐비통효록>(36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1.
- 권혁래, 『18~19세기 국문소설의 한역 및 개작에 대한 연구』, 『동양학』 제39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6.
-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과 통속적 한문소설』, 보고서, 2006.
- 류준경, 『영웅소설의 장르관습과 여성영웅소설』,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민 찬, 『여성영웅소설의 출현과 후대적 변모』, 서울대 석사논문, 1986.
- 박양리, 『초기 여성영웅소설로 본 <이현경전>의 성격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 차이, 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화사연구』 제31집, 민족문화사학회, 2006.
- 서대석, 『근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 장경남, 『병자호란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 여성 수난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1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3.
- 정준식, 『초기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적 기반과 정착 과정』, 『한국문학논총』 제61집, 한국문학회, 2012.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1998.
- 최지녀, 『여성영웅소설의 서사와 이념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5.
- 최호석, 『설저전 연구』, 『고소설연구』 제6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 최호석, 『<설저전> 이본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13집, 우리문학회, 2000.
-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1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 최혜진, 『여성영웅소설의 성립 기반과 규훈 문학』, 『우리말글』 제34집, 우리말글학회, 2005.

<Abstract>

##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Creative Consciousness of *Seol Jeo Jeon*

Kim, Dae-Gon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of *Seol Gyeong Jeon* by problematizing that studies of *Seol Jeo Jeon* till now had been conducted around the environment outside of the work rather than the creative characteristics inside of the work and revealing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work itself. As a result, in *Seol Jeo Jeon*, three narrative characteristics could be found. This work importantly dealt with rape and marriage by force that women of the times might suffer in the order destroyed by men through ‘the destroyed order and women’s suffering,’ and in such a problem situation, by describing ‘incompetent men and strong women’ extremely, it effectively expressed men who abandoned their own duties at home and in the country. In addition, it showed women’s restoration of the destroyed social order through defending the Confucian ideology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three basic principles by women.’ Considering these narrative characteristics, *Seol Jeo Jeon* is a work that embodied the limitat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man-centered social order.

An interesting fact is that *Seol Jeo Jeon* illustrated the reality of the 17th century Joseon, in which postwar moral principles were collapsing, as it was. In the work, men who show weak and incompetent attitudes from beginning to end were not very different

from the reality of the scholar-gentry men during the wars, and the collapse of the social order due to their' desire and inability looked very much after the reality of Joseon in the 17th century, when the postwar confusions were not resolved, and the situations got tangled. In addition, *Seol Jeo Jeon* that showed this was written in the late 17th century, when the wounds of war remained intact, so moral principles rapidly collapsed. Women who could not but suffer from pains in Joseon, where the 17th-century postwar moral principles collapsed, were embodied as those who were faced with an ordeal because of the tyranny of influential vassals in the work. To sum up a series of phenomena like this, it is noted that *Seol Jeo Jeon* embodied women's distress and anxiety about the social conditions in which the postwar moral principles were collapsing.

In addition, *Seol Jeo Jeon* presented 'the realization of the three basic principles in human relations by women with the workarounds for restoring the destroyed order, which was an attempt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Joseon society in the 17th century. However, focusing on the inverted gender roles and obligations of men and women in *Seol Jeo Jeon* can find that the author of this work sharply captured the society of the times. In the work, men are described as people who always destroy the social order with violence and indifference while women are people who restore the destroyed order by defending the basic doctrine of Confucian ideology. Like this, in the work, the inversion of the gender roles and obligations of men and women is judged to be the writer's intention to reveal the hidden face of the men that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Joseon society only by mouth through strengthening Confucian ethics at the time. Therefore,

*Seol Jeo Jeon*, superficially, shows the overcoming of the crisis of the society of the times as a measure for further strengthening Confucian ethics; however, it seems that it embodied mistrust and ridicule about the scholar-gentry man who just disturbed the postwar social order.

Key Words : *Seol Jeo Jeon*, Women's novel, Heroic novel, Female hero novels, novel of Jaejagain, Postwar novel, Imjin and Byeongja Invasions, 17th century, Women's consciousness

■ 논문접수 : 2016년 6월 16일

■ 심사완료 : 2016년 7월 28일

■ 게재확정 : 2016년 8월 16일